

사설

전쟁은 만생명의 적

불교역사에 전쟁은 없다. 불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 전쟁의 이면에는 특정세력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제왕권시대에도 부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군주들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신의 정복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백성을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

생명에 대한 보편적 사랑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다. 따라서 출가자가 국왕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되며, 출정군을 보아서도, 군대의 정열, 배치, 열병 등에 참석해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무기장사, 독약판매, 사냥 등은 불교도들이 택해서는 안되는 직업이다. 불교도가 지켜야 하는 제일의 계율

은 불살생이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다른 생명을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아합사정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일 수 없다는 극단적인 무저항 비폭력 사상이 여기서 출발한다.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 세력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전 세계적으로 반전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등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전쟁반대와 평화수호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가연대를 비롯한 불교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반전, 비폭력, 평화수호는 불교도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렇기에 불교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당연한 일이 비상하게 보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계종 발전의 '코드'는

조계종은 3월 24일 제31대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어느 때보다 조용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지난 한 달은 제31대 집행부 구성과 종단지표 설정, 각 분야별 장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간이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꼼꼼히 받고 교계 각 단체들을 방문하며 일일이 고충과 비전을 청취하는 법장 스님의 모습은 조계종의 '변화기류'를 실감케 했다.

취임법회에서 법장스님이 강조한 종단 운영의 기본 틀은 '원융'이란 두 글자로 집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 변화와 도약의 새로운 틀의 불교를 일구어 내겠다는 다짐을 곁들였다. 당연한 논리고 지당한 다짐이다. 이제 달라야 한다. 허끝에서 떨어지는 말은 한 인간도 성불시

키지 못하거는 중생제도인들 가당하겠는가? 오직 실천이 필요하다. 행동하지 않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오랜 수행과 다양한 행정 경력을 지닌 법장스님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종지종통 수호와 종풍 진작, 사부대중 참여의 원융종단 만들기, 사회적 역할 확대, 한국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에 대한 의지를 특별히 밝힌 것이다. 법장 스님의 이 같은 서원은 총무원장이라는 자리와 총무원이라는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종도의 합심된 코드에 의해 창조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종정 법전스님도 고구 정당한 법이로 종단의 원융과 화합을 당부한 것 아니겠는가.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 구성

제157회 임시종회, 총무원장선거법 등 개정 위해

고산·밀운 스님 원로위원 추천

호법부장 종열스님 만장일치 동의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종열스님(전 화엄사 주지)의 조계종 호법부장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157회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교구종회법,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해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종원, 정후, 법등, 영담, 영배, 종광, 학담, 현응, 정법, 본각, 법안, 장작, 효림 스님 등 13명이며, 위

원장은 종원스님이 맡았다.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총무원장 및 종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정과 선거인단 자격 및 선출 문제,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종회는 28일 속개된 회의에서 종열스님에 대한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호법부장 종열스님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25일 현진스님 동의

안이 부결돼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다시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고산스님(전 총무원장)과 밀운스님(봉선사)이 만장일치로 원로위원에 추천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6석의 법규위원에는 지현, 현각, 환안, 법선, 성일, 성찬 스님이 선출됐다. 재심회계위원회는 법규스님이 재선출됐으며, 기초선원 운영위원회에는 지성, 무여, 인각, 원웅, 정찬, 현묵, 영인 스님 등 7명이 위촉됐다.

종열스님은

호법부장에 임명된 종열스님은 1953년 생으로 도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통도사에서 월

현재 조사특위가 구성돼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봉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6개월간 정밀 실사를 맡아하기로 했다.

선학원과 관계 정상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총무원법도 개정됐다. 종회는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선학원 권리보장 조항'을 총무원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제 조사특위가

현제 조사특위가 구성돼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봉은사 문제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6개월간 정밀 실사를 맡아하기로 했다.



현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불교교육단체 연합회 새 포교사 142명 품음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공동대표 활안·이하 연합회)는 3월 22, 23일 청원 월대수련원에서 포교사 연수 및 품수식을 열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장 활안스님, 해동범음대학장 대은스님,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 김재일 동산불교대학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142명 신규 포교사들은 연합회 포교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연합회 포교사단 초대 총단장에는 동산불교대 출신 이진호 포교사가 선출됐고, 전금규, 박근출, 김연옥 씨 등이 각 대학 대표 포교사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연합회 포교사들은 앞으로 조계종 포교사단과 별도로 인터넷 포교, 성지순례 포교, 다도 포교, 군법회 지원, 장의봉사, 설마를 포교, 사회복지 포교 등 15개 분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강유신 기자

서울시청앞 봉축탑 22일 점등

봉축위, 등 나누기 등 일정 확정

올해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봉축위원회는 등전시회, 연등놀이, 불교문화마당 및 '등 나누기 캠페인' 등 봉축행사 일정 및 사업을 3월27일 발표했다.

4월22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이 오르는 올해 봉축행사는 등전시회(5월2일~8일, 봉은사), 연등놀이(5월3일 오후 7시~9시, 조계사-인사동-탑골공원-우정국로), 불교문화마당(5월4일 낮12시~오후8시, 우정국로), 어울림마당(5월4일 오후 4시30분~6시30분, 동대문운동장), 제등행진(5월4

으로 진행된다. 또 5월8일 오전 10시에는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법요식을 갖는다.

이와 함께 봉축위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 포인인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라는 내용에 알맞게 가족이 팔모등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에 들어갔다.

◆봉축행사 일정

행사	일시	장소	내용
시청앞 점등식	4. 22 19:00	서울시청앞 광장	봉축탑 점등
등전시회	5. 2-5. 8	삼성동 봉은사	전통등 출품제 전시
연등놀이 (전야제)	5. 3 19:00~21:00	조계사, 인사동, 탑골, 우정국로	장엄등 점등, 연희단 공연
불교문화마당	5. 4 12:00~20:00	우정국로	연등만들기, 서각, 탁본, 선무도, 민속놀이, 범패, 사찰음식 시음 등
어울림 마당 제등행진	5. 4 16:30~18:30	동대문운동장	연희단 공연, 연등법회
	5. 4 19:00~21:30	종로 (동대문→조계사)	장엄등 행진
대동한마당 법요식	5. 4 21:30~22:30	우정국로	연희단 공연
	5. 8 10:00	조계사 등 전국 사찰	법요식, 관등놀이(18:00)

계성(전등사 주지) 스님을 위촉했다.

현명우 기자

총본산성역화불사추진위 집행위원장에 법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3월28일 한국불교총본산성역화 불사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에 법등스님을 위촉했다.

또 집행위원에는 성관(총무부장), 현고(기획실장), 태연(재무부장), 탁연(문화부장)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와 지홍(조계사 주지), 원형(종회의원), 종삼(종회의원)

들이 참석한 이날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에 이어 2002년 결산안 승인과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한 선임 등에 관한 안건이 논의됐다.

btn은 이날 법공 스님(총지종 13대 총리원장)과 정암 스님(해동 용궁사 주지, btn 부산지사장), 조연 스님(경주 법원원 회주)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또 성우 스님과 신허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을 재선임했다.

여수령 기자

이라크 어린이에 의약품 보내자

종단협, 다른 종교단체들과 캠페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라크 어린이들을 돕는 운동이 전개된다.

종단협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교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이라크 어린이에게, 폭탄 대신 의약품'이란 주제로 전개되는 이 캠페인은 각종 성금 모금, 반전

평화 콘서트·마라톤 개최, 반전 평화결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성금 모금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은 이라크 현지 의료기관과 어린이 난민캠프에 전달될 예정이다.

종단협 김석오 총무과장은 "이라크는 91년 이후 60만명의 어린이가 사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전평화운동의 확산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물고기 No, 나무방생 Yes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02-737-1522 www.buddhanews.com

인쇄인 : 김규석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등록번호: 다-3379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대표전화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02-737-8881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봉

태아 <낙태, 유산> 영가 49일 천도재 및 태아 동자상 조성불사

증명 법사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행

저희 구담사에서 매년 유산된 태아 영가의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상속에서 생사를 되풀이 하는 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생의 업력을 받아 삼계 윤회 하는 도중 출생처인 모태에 들어가 인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 인지 알지 못하며 무명속에서 잃어버린 태아의 영혼을 위해 참회 하는 마음에서 태아 동자상 조성 불사를 하오니 동참 하시어 항상 이 도량에서 참회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 특히 대학수험생은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정성스럽게 태아 영가를 위해 기도 하는 도량은 구담사가 최초의 성지입니다.

♣ 위패를 쓰는 관례로 미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입재일: 양력 4월 6일(음력 3월 5일)
- 회향일: 양력 5월 25일(음력 4월 25일)
- 태아 영가 제사: 입재일(양력 4월 6일) 3재(양력 4월 27일) 5재(양력 5월 11일) 7재(양력 5월 25일)
- 버스 운행: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장소: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오전 8시)
- 기도 동참비: 49재 기도 동참금(10만원)
- 위패비: 1위당 5천원 옷: 천원
- 태아영가 동자상 동참금: 30만원
(동자상 동참하신분은 49재 7회동안 기도비 없고 위패비만 추가됩니다.)
- 준비물: 분유, 사탕, 과자, 초코렛 등

입금 계좌 : 국민은행 (217-01-0339-914)
농협 (2250-56-03370)
예금주: 구담사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전화 : 031-533-2855 팩스 031-532-2441